

KOREA UNCOVERED

조선왕조 역사 깃든 '시간과 공간의 파노라마'

궁궐대목수 겸 사진작가 정명식 개인전... 29일까지 예술이 백그라운드
가로 3m 1800여컷 대형사진 'AM 06:20' 눈길... 8일 작가와의 대화

궁궐 대목수인 정명식은 1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길 특정 장소에 섰다. 지난 2011년 5월 2일 장덕궁 출근을 시작했다. 그는 첫날의 기록을 위해 사진을 찍었다. 6시 20분 당시 창덕궁의 풍광은 지금도 선명하게 남아 그날의 시간을 증명한다.

해남 출신 정명식은 문화재청 소속 궁궐 대목수다. 궁과 왕릉을 비롯해 사찰 등 문화재를 보수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호남대에서 건축학을 전공한 이후 대목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NAVER 창작지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첫눈에도 그에게선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진다. 땀뻑 깎은 머리 때문인지 한 번 보면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인상이다. 예술가 특유의 아우라도 있지만 고집스럽다기보다 열려 있는 느낌이 든다.

정명식 대목수 겸 사진작가가 창덕궁을 비롯해 근정전, 인정전, 경복궁 등 궁궐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을 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오는 29일까지 복합예술공간 예술이 백그라운드.

'KOREA UNCOVERED'를 주제로 열고 있는 전시는 '한국, 발견되지 않았던 것(?)'이라는 의미처럼 궁궐의 신비로운 모습을 담고 있다. 전시는 지난 2007년 이후 16년 만에 광주에서 이뤄지는 터라 의미가 있다.

사실 궁궐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구궁궐 높은 담에 둘러 쌓여있어 속내를 알기가 쉽지 않다. 궁궐 속에는 조선왕조 600여 년

의 영광과 오욕의 역사가 숨 쉰다. 일반인에게 미지의 공간인 궁궐이 누군가에게는 때로 심미적이면서도 환상적인 공간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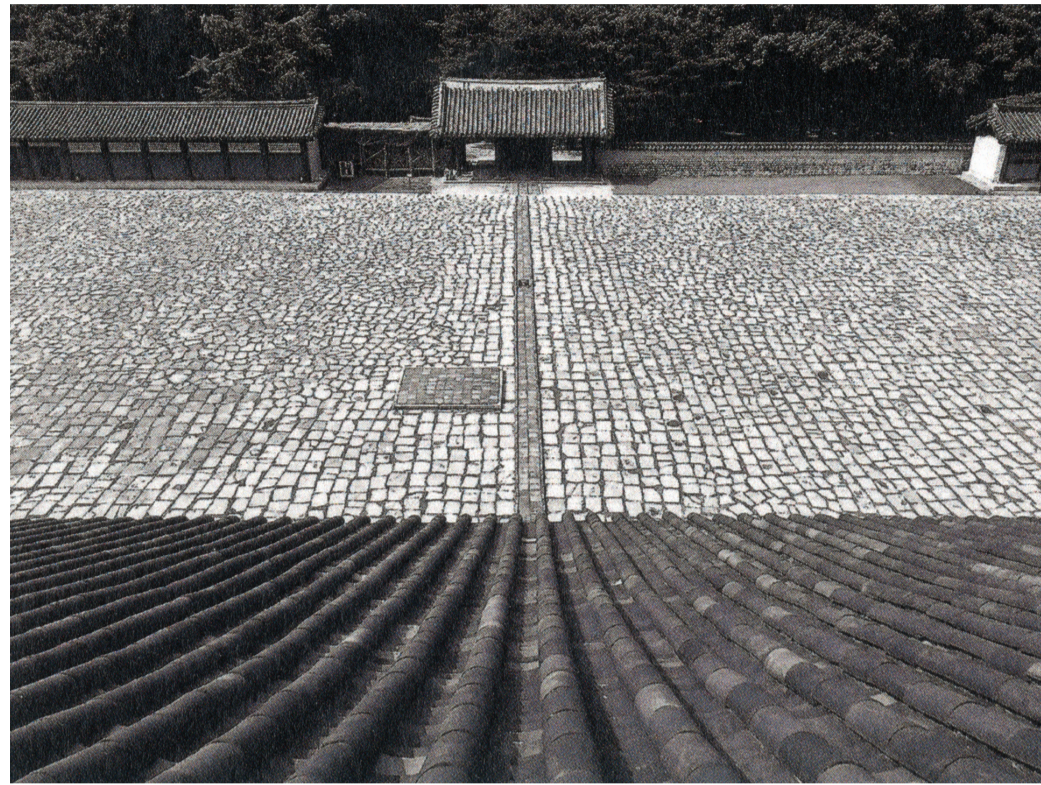
인근한대로 가장 눈에 띄는 작품은 'AM 06:20'. 광주 전시에서 처음 선보이는 가로 3미터 세로 3미터 대형 사진으로 1800여컷 사진이 모여 만들어졌다. 작가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의 결정체이자 한편으로는 감성과 지성의 통합체"다.

정 작가는 "이 촬영을 시작으로 퇴근할 때까지 궁궐 안에서 펼쳐지는 무수한 많은 여정을 최대한 관찰하고자 했다"며 "출근하는 동료의 모습, 청소 담당자, 직원식당의 여사님들, 다양한 방식으로 궁을 즐기는 관람객들의 모습과 사계절의 풍경을 렌즈에 담았다"고 말했다.

입궁 첫날 기록용으로 찍었던 6시 20분 풍광은 이후 작가의 루틴이 되었다. 나아가 그것은 "조선왕조 600년의 미래 시간의 원형질 일부"가 되었을 것이다.

전시장에는 작가가 그동안 담아낸 궁과 능을 비롯해 사찰이 망라돼 있다. 컬러와 흑백의 장엄한 파노라마를 감상할 수 있다.

정 작가는 "10년간 약 10만 여장의 사진을 찍으며 궁궐의 변화를 나만의 시각으로 담아내고자 했고 이를 통해 평범한 일상적인 관점에서 궁궐을 기록하고자 했다"며 "관람객들에게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시간의 흐름을 전달하고 싶었다"고 언급했다.



종묘(宗廟)

작품들 가운데는 한국의 아름다운 궁의 곡선을 담은 작품 외에도 단단한 박석에 박힌 옥망의 품계석, 산사의 다비석, 청동 종을 매단 꼬임 줄 등도 있다. 특히 부드러운 처마 곡선 아래 숨 막힐 듯 빼곡하게 들어찬 박석의 모습과 청동 줄을 매단 꼬임 줄의 이미지는 시선을 압도한다.

이당금 예술이 백그라운드 갤러리 관장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꼬박 10년 세월을 담아낸 것은 어찌보면 궁궐 목수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며

"담아냈다고보다는 피사체가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류승민(고려대 한국미술사)은 "대담한 만큼 인문적 사유도 깊음을 느껴졌다. 그런 사유는 관계 이면에 있는, 누적된 시간에서 나온 것임도 틀림 없을 것"이라고 평했다.

한편 오는 8일 오후 3시에는 작가의 시간으로, '토코쇼'도 진행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명작 단편 '얼쭈'

'판당', 22일 광산문예회관

90년 동안 책 속에 갇혀있던 길쭉한 귀를 빼죽 내미는 '판당(판소리하는 당나귀)'들이 세상으로 뛰쳐나와 신명 나는 이야기를 전한다.

명작단편소설 뮤지컬 '얼쭈'가 오는 22일(오후 3시,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 무대에 오른다. 우겸 퍼니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이번 공연은 문화와 뮤지컬의 유쾌한 컨버전스를 통해 관객에게 다가가는 자리다.

소리꾼 '판당' 들은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봄봄' (김유정) 등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이야기를 풀어낸다. 이번 공연은 3대가 함께 보는 뮤지컬을 목표로 대중성, 작품성에 초점을 맞췄다. 원작의 힘을 빌려 관객을 흡인하는 서사를 풀어내는 한편, 우리가 놓쳤던 소설 속 사랑 이야기까지 섬세하게 담아 낼 예정이다.

작품에는 '코믹 농촌 랩'처럼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요소도 풍부하다. 피리, 해금, 가야금부터 생황까지 다채로운 사운드까지 입혀져 공연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판소리와 민요를 문학, 춤 등에 접목해 젊은 세대에 흥미를 끌 것으로 보인다. 연출에 이상욱이, 예술감독은 이진혁이 맡았으며 권태진, 조현식, 강안대 배우 등이 무대에 오른다.

작품은 2017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공동제작해 2019, 2020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방방곡곡 문화공감 선정작으로 뽑혔다. 2020년에는 한국관광공사 웰컴대학로 소성자, 같은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에 선정됐다.

전석 1만 원, 예매는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식사하러 왔다가 예술 감성에 빠져들다

"갤러리야? 레스토랑이야?"

광주시 북구 일곡동에 자리한 복합문화공간 '마시모레지나' (광주 북구 일곡택지로 69)를 찾은 이들은 독특한 분위기에 신선한 충격(?)을 받는다. 가족이나 지인들과 식사를 하기 위해 들른 레스토랑 곳곳에 수십 여점의 그림이 전시돼 있기 때문이다. 인테리어 목적으로 1~2점의 그림을 내건 레스토랑이나 식당은 더러 있지만 아예 '본격적'으로 작품을 설치한 곳은 많지 않아서다. 게다가 그림이 돋보이도록 주제에 맞춰 최적의 장소에 은은한 조명시설까지 갖춰 미술관이나 갤러리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킨다.

지난 2021년 '일상 속 예술'을 모토로 문을 연 마시모레지나가 문화사랑방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술감상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갤러리 G'와 손잡고 오는 30일까지 '파사드 에스프레소'라는 기획전전을 열어 또 한번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개관 기념으로 개최했던 '스치며 보이는' 전이 호평을 얻자 자신감을 얻은 마시모레지나와 전시디렉터 허정씨가 '갤러리 G'라는 간판을 달고 일상에서 연중 미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G갤러리는 마시모레지나를 스페이스 1, 인근의 주택을 리모델링한 전시장(광주 북구 일곡택지로 83)을 스페이스 2로 꾸몄다.

첫번째 프로젝트로 기획한 '파사드 에스프레소'는 회화, 조각, 미디어아트 등 다양한 장르의 미술을 진한 커피향처럼 전파한다는 의미를 담고

복합문화공간 '마시모레지나'

'일상 속 예술' 모토 2021년 오픈 강동호·진허·김미애 등 5명 참여

있다. 이번 전시에 참여하는 작가들은 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젊은 아티스트들로, 동물·여성·민화·사랑 등 저마다 독자적인 주제와 방식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레스토랑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붉은 색의 하트 모양과 연인들을 소재로 한 강동호 작가의 'Angel Mine'이 눈에 띈다. 마치 팝아트를 연상케 하는 감각적인 느낌의 작품은 보는 이의 눈을 즐겁게 한다. 시선을 조금 더 안쪽으로 돌리면 개와 고양이를 소재로 한 송영화 작가의 '주르륵 흘러내리다'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인 맹화 기법

으로 의인화된 동물들을 해석적으로 표현한 그의 작품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주목을 받는 작가는 여성 아티스트 김미애와 진허다. '여성'을 주제로 작업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여성의 삶을 테마로 이들이 관람객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다르다.

먼저, 김미애 작가의 '커피한잔'은 당당한 여전사의 이미지가 인상적이다. 분홍색 하이힐을 신고 누드 차림으로 담배를 피며 차를 마시는 여성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는다. 반면, 진 허 작가의 '꽃같은 인생'은 나무의 나이테에 여성의 삶을 대입시켜 전통적인 어머니 상을 표현해 눈길을 끈다. 어머니의 삶을 지켜이 쌓은 나이테처럼 인고의 세월을 보낸 여성의 존재를 되돌아 보고 있다.

마시모레지나가 복합문화공간으로 외연을 넓



강동호 작 '엔젤 마인'

혀가는 데에는 마시모레지나를 운영하는 MTUS 조현일 대표의 공을 빼놓을 수 없다. 무안 출신으로 광주와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는 그는 자신을 키워준 고향에 보답하기 위해 청년작가들에게 레스토랑 공간을 전시장으로 개방한 것이다.

허정씨는 "광주에는 갤러리가 많지만 청년작가들의 창작욕구를 키워주는 상업 화랑이 적어 이들이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이 곳에서 작품을 관람한 고객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제로 구입하는 경우도 많아 작가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현 문화선임기자 jhpark@kwangju.co.kr



파사드 에스프레소 전시 전경.

'문화도시 광주, 방향 모색'

광주문화도시협, 내일 포럼

민선 8기 1년을 맞아 문화도시 광주의 방향을 묻고 답을 구하는 포럼이 열린다.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는 오는 5일(오후 3시) 제일빌딩 245 시민마루에서 '민선 8기 1년, 문화도시 광주, 길을 묻고 답을 구하다'를 주제로 포럼을 연다

이번 포럼은 1부 정책포럼, 2부 현장의 문화예술인과 함께하는 이야기마당으로 진행되며 광주 문도협, 광주민예총(이사장 정찬일), 상상실현네트워크(대표 정두용)이 주최한다.

한선 호남대학교 사회로 진행되는 1부에서는 김요성 광주시 문화체육실장이 '민선 8기 문화정책(행정) 성과와 과제'로 주제 발표를 하고 전고필 영암문화관광재단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패널은 장도국 연극배우, 정두용 청년문화허브 감독, 김광욱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이 참여해 '문화행정 혁신', '예술인 권리 조례 제정 이후 과제', '문화예술 보조금 사업 개선 과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 정착을 위한 광주시 역할'을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지는 2부는 현장의 문화예술인과 광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이 함께하는 이야기 마당. 김태진(쑤동네준민 사회로 전고필 아목구심서 대표, 정양주 광주민예총 부회장, 이순화 있다 대표, 정진삼 광주장애인문화협회 회장이 이야기 손님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첼리스트 김규식 'BEETHOVEN' 리사이틀 17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첼리스트 김규식(사진)의 전국투어 리사이틀 공연이 광주에서도 열린다. 유스퀘어문화관은 오는 17일 오후 7시30분에 금호아트홀에서 'BEETHOVEN'이라는 제목으로 공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대표적인 첼리스트로 알려진 김규식의 첼로 리사이틀(독주회)로 모든 프로그램을 베토벤의 곡으로 구성했다. '헨델 주제에 의한 주다스 마카베우스 12개 변주곡', '첼로와 피아노

소나타' 등 3편을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전국투어 연주회는 19일간 전국 9개 지역을 순회하며 열린다. 11일 대구 공간울림 연주회를 시작으로 12일 김해 남명아트홀, 29일 통영 내성작사동호회에서 개최된다.

김규식은 서울예고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빈 국립음대, 독일 에센 국립음대, 영국왕립원 등을 거쳤으며 그동안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도쿄, 중국 등에서 공연을 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

아왔다.

이번 무대는 피아니스트 신재민이 함께 해 피아노와 첼로의 앙상블을 즐길 수 있다. 신재민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 한스 야이슬러 국립음대 석사, 미국 LA 콜번 스크 예술학위 등을 취득했다. 2015년 베를린 필하모니 홀에서 'Springsound'를 세계 초연해 극찬을 받은 바 있다.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하면 된다. /최류빈 기자 rubi@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